

보도자료

2010년 1월 11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용석 과장(☎750-1710)
국제협력담당관실 윤웅현 사무관(☎750-1715)

형태근 상임위원, 영국 제레미 헌트 의원과 면담

- 영국 '브로드밴드 확산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월 8일(금) 오후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제레미 헌트 문화미디어스포츠 상임위 소속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광대역망 구축 현황과 정책방향을 소개하였다.

이번 면담은 제레미 헌트 의원측이 영국의 '브로드밴드 확산계획 (Digital Britain)'을 검토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Digital Britain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기업혁신기술부(DBIS)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국의 중장기 디지털화 계획으로, '09. 6월 최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유선 광대역망 확산에 유리한 밀집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0년 구축이 완료되는 광대역 통합망을 '12년까지 1기가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광대역 융합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초광대역 융합망 구축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레미 헌트 하원의원은 적정한 요금정책 등을 통하여 소비자 수요를 진작시키고, 자율적 경쟁체제를 통하여 광대역망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구축시킨 한국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광대역망 고도화를 통하여 녹색성장을 견인하려는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난 9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A National Broadband Plan)'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책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영국도 우리의 정책을 조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세계최고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하여 양국간 ICT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끝.